

“최소한,”

폴이 대꾸했어.

“비르지니에게 작별 인사라도 했다면, 제가 지금 진정할 수 있을 거예요. 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. 비르지니야, 우리가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내 입에서 튀어나온 어떤 말یدن 너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, 영원히 헤어지기 전에 날 용서한다고 말해줘. 전 비르지니에게 말했을 거예요. 이젠 두 번 다시 너를 볼 수 없는 운명이니, 안녕, 내 사랑 비르지니! 안녕! 내게서 멀리 떠나더라도 기쁘게,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!”

그러던 폴은 자신의 어머니와 라 투르 부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네.

“이제 나 말고 두 분의 눈물을 닦아줄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!”

그리고 나서 폴은 두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탄하며, 농지 여기저기를 헤매기 시작했어. 비르지니가 가장 아끼던 모든 장소를 돌아다녔지. 매매 울면서 그를 쫓아오는 비르지니의 염소들과 작은 새끼 염소들에게 폴은 이렇게 말했네.

“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? 너희들에게 손수 먹을 것을 챙겨주던 사람은 이제 내 옆에서 다시 볼 수 없어.”

비르지니의 쉼터에 있던 그는, 퍼덕이며 주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이렇게 외쳤지.